

| 2015 제주문화 답사 |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



김만덕기념관
mandukmuseum.or.kr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

차 례

답사에 들어가며

조선시대 제주사회	2
출륙금지령	3
조선후기의 상업과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4

답사코스

▶ 김만덕 기념관(상설전시관, 나눔체험관, 영상)	5
▶ 김만덕 객주(제주시 임항로 68)	7
▶ 산지포구와 산지천(산짓물, 조천석)	8
▶ 금산수원지생태원 (물사랑홍보관, 금산물, 지장각물, 광대물)	10
▶ 공덕동산	11
▶ 화북포구	11
▶ 해신사	12
▶ 화북진성	12
▶ 환해장성과 화북연대	13
▶ 조천연대	14
▶ 조천 연북정	14
▶ 모충사	15

답사에 들어가며

이 답사는 김만덕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 걷는 길이다. 우선 김만덕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와 유적지를 돌아보고, 그녀가 살았던 조선시대 역사문화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한다.

김만덕의 활동무대였던 건입동의 산지천(포구) 주변을 둘러보고, 새롭게 개관한 ‘김만덕기념관’과 조선시대의 객주집을 재현한 ‘김만덕객주’, 그리고 사라봉 모충사 내 ‘김만덕묘탑’도 찾아본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던 화북포구와 조천포구 주위의 유적지를 돌아본다. 이렇게 조선시대 역사문화의 현장을 찾는 것은 제주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이 답사의 의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답사를 넘어 김만덕의 정신인 ‘은광(恩光)’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데 있다. 김만덕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 걷는 이 답사가 나눔과 베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본다. 나눔과 베품이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조그마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한다.

추사 김정희가 은광연세(恩光衍世)라고 썼듯이 ‘은혜로운 빛이 세상에 퍼져야’만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사회

조선시대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속해 있었다. 1416년 제주는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이 설치되어 삼읍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삼읍구조는 조선 500년 동안 지역적인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의 인구는 5~6만 명 내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중산간은 모두 목장으로 만들어 이용되고, 해안 지역의 일부만 농사를 지을 수 있

어서 경작지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나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마저도 푸석 푸석한 뜸 땅인 화산회토라 수확물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사람을 낳으면 제주로, 말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조선시대의 제주는 모든 것이 열악한 섬이었다.

제주사람들의 더 큰 고통은 특산물의 진상과 부역, 납세에 시달리는 일이었다. 목마를 담당하는 목자는 처자식을 파는 경우까지 생겼고 어린아이와 노인까지도 부역에 나가야 했다. 진상할 감귤나무에 몰래 뜨거운 물을 부어 말라죽게 하는 일도 있었다는 기록으로 볼 때 진상의 폐단이 심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이유로 섬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결국 ‘출륙금지령’이라는 법령이 내려진다. 이로써 제주인들은 약200여 년간 섬 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조선은 제주에 목사를 파견하여 강력한 통치를 원했지만 제주인들은 토착 세력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제주사회를 주도해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중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일이 어려웠고, 중앙정치권과의 갈등과 가혹한 경제적 수탈이 계속되면서 제주백성은 고난의 세월을 감내해야만 했다.

출륙금지령

제주에서의 출륙금지령은 그야말로 제주를 감옥섬으로 만드는 법령이었다. 척박한 제주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본토 육지로 도망가는 백성이 많아지면서 제주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1629년에 내려진 법령이다. 이로 인해 포구에서는 허가증이 있어야 승선할 수 있었고 출항 할 수 있었다. 특히 제주 여성들이 다른 지방 사람들과의 혼인도 엄격하게 금지됐다. 인조 7년(1629)부터 순조23년(1823)까지 무려 200여 년간 이어지면서 제주인과 외부와의 교류는 사실상 단절되고 만다.

조선후기의 상업과 제주여성의 경제활동

조선사회는 사농공상의 신분제가 강한 사회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공물을 쌀로 통일해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인 ‘대동법’이 실시된 17세기 이후 수공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 사용이 장려되면서 돈의 가치와 상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급격한 변화가 오게 되었다. 18세기가 되면서 전국에 1,000여개의 시장이 들어선다. 시장은 8도에서 올라온 각종 특산물로 항상 활기를 띠었다. 개성 인삼, 한산 모시, 안성 유기, 원산 북어 등 이들 특산물은 희소성으로 인해 사재기가 가능했다. 상인들은 특산물 거래를 통해 조선후기 신흥부자로 떠오른다.

제주도의 농업은 척박한 토양과 소규모의 토지에서 밭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지극히 낮았다. 따라서 험한 바다에서 어업을 함께하는 반농반어 생활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누구나 생산에 참여해 제몫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반과 상민, 적자 서자, 남자와 여자 등의 구분이란 것이 사실상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평등과 공정은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 제주여성은 농사에서 남성과 공동으로 또는 주로 담당했으며, 바다에서도 해녀로 일하면서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제주사회의 분위기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만덕은 건입포구에 물산객주를 차린다.

(김만덕기념관 전시물에서 인용)

답사 코스

▶ 김만덕 기념관



1980년부터는 김만덕의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만덕상’을 제정, 매년 10월에 열리는 탐라문화제에서 시상식을 거행하여 또 다른 만덕을 계속 배출해가고 있다. 기녀 출신에서 제주의 성공한 CEO로 자리 잡은 여성,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이 있어 조선시대 여성사는 더욱 풍부하게 되었다.

의녀 김만덕의 생애



김만덕은 영조 15년(1739)에 양가집 딸로 태어났으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오갈 데 없자 기녀의 수양딸로 들어가 자라게 된다. 그 때문에 기녀가 되면서 천민의 신분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자신의 신분을 못 마땅히 여겨 기녀의 신분을 청산하고 본래의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온다. 독립하여 생활하게 된 김만덕은 23세 때 객주업을 시작으로 탁월한 수완으로 큰돈을 모아 거상이 된다.

정조 16년(1792)부터 정조 19년(1795)까지 계속 흉년이 들어 도민들은 매우 큰 어려움에 처한다. 특히 갑인년(1794) 흉년은 제주도 인구가 수만

여명 줄어들 정도로 심각하여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 때 김만덕은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내놓아 목포에서 곡물을 사들여 도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었고 그래서 제주도는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 제주목사는 이러한 김만덕의 선행을 상소문을 올려 임금에게 알렸다. 당시 임금인 정조는 그 선행

을 가상히 여겨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그에 김만덕은 임금님 계신 궁궐과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라 답했고, 정조가 소원을 받아들여 친히 그녀를 궁궐로 부르고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 때 임금은 김만덕에게 특별히 ‘의녀반수’라는 명예직함을 주어 궁궐출입을 허용하였다. 조선의 법도는 아무나 궁궐로 들어갈 수 없었고 명분이 있어야만 했기에 정조가 명예 벼슬직함을 내린 것이다. 김만덕의 묘비에

‘행수내의녀김만덕지묘(行首內醫女金萬德之墓)’라고 새겨져 있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시 출륙금지 시절임에도 김만덕은 여성의 신분으로 제주도를 벗어나 임금을 알현하였고, 더욱이 최고의 명산 금강산까지 구경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만덕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관찬자료를 비롯하여 당시 학자나 관료들의 개인 시문집 곳곳에 남아 있다. 정조는 김만덕의 선행이 대대손손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여겨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채제공에게 ‘만덕전’을 짓도록 명령하였다.

특히 헌종 6년(1840) 제주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는 ‘은광연세(恩光衍世)’ 즉, ‘은혜의 빛이 세상에 번지다’라는 글을 양손자 김종주에게 써 주면서 만덕의 선행을 기억했다. 김만덕 사후 30여년이 지난 후에도 추사의 기억 속에는 김만덕의 선행이 깊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의녀 김만덕은 순조 12년(1812) 10월 12일에 74세의 나이로 타계하여 유언에 따라 제주 성안이 한눈에 보이는 ‘ㄱ으니믄루’라는 동산에 안장하였다.

ㄱ으니믄루에 있던 만덕묘는 제주시가지가 확장되면서 이장하게 되었고, 1977년 유해를 수습하여 사라봉 동남쪽 기슭의 모충사의 탑 밑에 안장시켰다. 옛 묘에 있던 김만덕의 묘비와 상석, 동자석, 망주석 등의 석물은 함께 옮겨와 묘탑 아래 맞은편에 세워 있다. 묘의 비문에는 그의 생몰 시기, 출신, 성

장 과정, 재산 형성과 진흙 과정, 상경과 금강산 유람, 용모, 후손 등에 관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 김만덕 객주(제주시 임항로 68)



어릴적 기녀였던 김만덕은 23세가 되자 기녀에서 벗어나 장사를 시작하고 객주집을 차려 제주 제일의 거상이 된다. 김만덕은 물산객주¹⁾집을

운영, 제주의 토산품을 육지로 파는 장사수완을 발휘하여 거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만덕의 객주는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 미역, 전복, 표고, 버섯, 양태, 우황, 약초, 녹용 등을 수집했다가 육지 상인에게 공급하고, 육지 상인에게는 쌀과 소금,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들여와 제주도민들에게 육지의 물건을 파는 유통업을 했다. 만덕은 관가의 물품도 공급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선상(船商)을 유치하고 자신의 배까지 소유하면서 포구의 전 상권을 장악, 제주의 최고 거상이자 최초의 여성 CEO가 되었다.

‘객주’란 조선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의 숙박을 제공하며 물건을 맡아 팔거나 흥정을 붙여주는 일과 같은 영업을 하는 집을 말한다. 객주를 분류하면 물산객주 또는 물상객주, 여각만상객주, 보상객주, 보행객주, 환전객주, 무시객주 등이 있다.

김만덕객주터는 김만덕기념관 동쪽 일대에 개관되었다. 2146m² 부지에 만덕 고가(古家) 3동·창고 1동·객관(여관) 2동·주막 1동 등 초가 전시동과 객주 시설 등 7동으로 재현됐다.

1) 물산객주 : 객주의 원래 유형으로, 주업인 위탁매매는 물론이고 부업에 속하는 숙박, 금융, 도매, 창고, 운반 등 주선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했다.

실내는 농기구와 항아리·맷돌 등 생활용품, 사람·소·말 등 모형, 병풍 등이 전시되고, 실외는 우물·통시(화장실)·장독대·눌굽·우영팻(덧밭) 등 당시를 돌아볼 수 있는 시설들로 조성되었다.

▶ 산지포구와 산지천



제주사람들만의 독특한 생활상을 간직한 해양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포구이다. 바다를 의지해 생활해온 주민들에게 포구는 생활의 중심이었다. 250여킬로미터의 해안선을 가진 제주는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 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혜롭게 포구를 축조해야만 했다.

제주는 섬이라 당연히 교역이 필요하며 그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산지포구가 담당했다. 산지포구는 산저포(山底浦), 건입포로 말하기도 한다. 1928년 산지항 공사 때 방파제 채석장 석산 속에서 전한시대의 오수전과 고경, 그리고 왕망시대에 처음 주조된 동제 화폐가 출토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제주인들이 오래전부터 해외교역을 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산지천은 과거에 산짓내(山地川), 산저내(山低川) 또는 가락천(嘉樂川)이라고도 불려 왔다. 예로부터 산지천 하구는 ‘산포조어(山浦釣魚)’라 하여 산지포에서 고기 잡는 돛단배와 낚시를 하는 경관이 빼어나 영주10경에 속하였다.

산지천의 하류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구간으로 용천수가 풍부하게 솟아나는 하천으로도 유명한데 ‘산짓물(山地泉)’, ‘금산물’, ‘지장각물’ 등의 있다. 제주시에 상수도가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이전인 1960년대 초까지도 많은 제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었다.

산지천의 하류 구간인 일도1동 동문교에서 건입동 용진교 구간은 1966년

부터 1996년까지 약 30여 년 간 복개되어 주상 복합지구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폐수유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건물마저 붕괴위험이 있어 결국 철거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약 6년 동안 정비함으로써 생태 하천으로 거듭 태어났다.

현재는 산지천 동·서쪽으로 탐라의 역사, 문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겠다는 ‘탐라문화광장’이 조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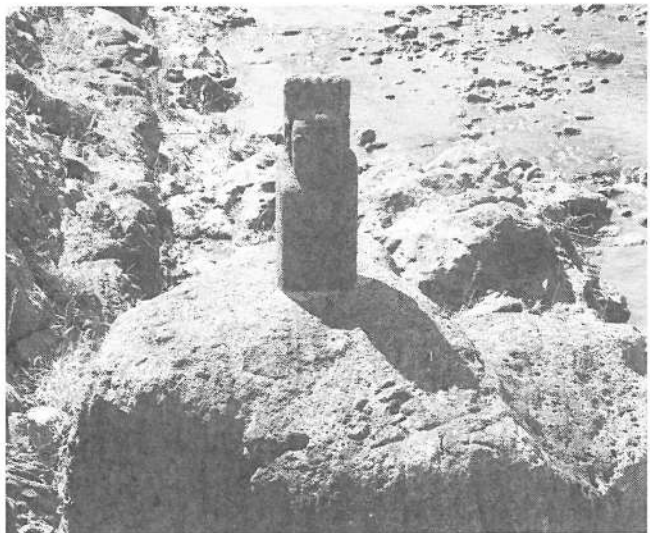
산짓물

‘산짓물’은 지금의 산지교 밑, 산지천 가에 있는 샘물을 말한다. 이 샘물은 여름에도 얼음처럼 차고 맛이 좋아 온 성안 사람들이 오다가다 마셨다한다. 산지물 주변에 은어가 많이 서식했으며, 임금에게도 진상하였다고 기록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과거부터 수량과 수질면에서 매우 좋은 물이라는 것을 짐작케 해준다.



조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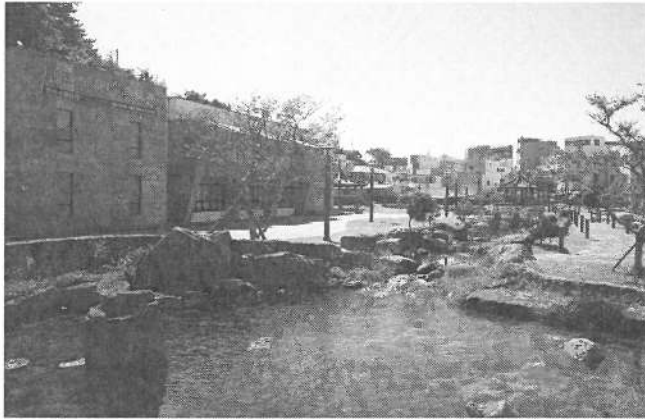
‘조천’이란 하느님께 배알한다는 뜻이다. 산지천에 세운 것은 복제품이고, 진품은 제주대학교에 있다. 조천석은 홍수의 재앙을 막아주도록 하늘에 기원하던 신앙석이다. 옛 산지천은 태풍이 불거나 큰 비가 내리면 물이 범람하여 주



변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성안 사람들은 이 곳 경천암에 조두석을 세우고, 해마다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를 올렸다. 1736년 김정 목사는 이 바위를 지주암이라고 명명하였다.(『건입동지』, 2008. p426)

옛날 명나라로 가던 배들이 모두 이곳에서 바람 자기를 기다렸으므로 이 표석을 세웠다고 하고, 산지천을 거슬러 올라오는 배들이 이 표석을 기준 삼아 배를 매었다고도 한다.(『제주시 옛지명』, 1996)

▶ 금산수원지생태원(물사랑홍보관, 금산물, 지장각물, 광대물)



금산수원지생태원은 ‘금산’일대에 위치해있다. 건입동의 ‘금산’은 제주시 동문로타리에서 제주항쪽으로 가다보면 산지천변 동쪽에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곳을 말한다. 옛날, 사람들이 나무 따위를 함부로 배지 못하게 통행을 금

지했다고 해서 ‘금산’이라 하였다. 금산은 제주시의 서쪽마을 애월읍 남읍리에도 있듯이 마을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보호되기를 바라는 장소를 이름하여 그렇게 불렀다.

금산수원지생태원에는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천수인 금산물, 광대물, 지장샘이 있다. 금산수원지생태원에서 솟아난 물들은 결국에는 지장각물로 모여 들고 바다로 흘러간다. ‘지장각물’은 지장샘에서 흐르는 물이라 해서 이렇게 부르고, ‘광대물’은 매립되어 사라졌던 것을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복원시켰다.

금산수원지생태원은 제주도 용천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옛 금산수원지 건물에 ‘물사랑전시관’을 설치하여 제주 물의 역사와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생태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공덕동산



이 공덕비는 고종 14년(1877) 2월에 건입리 주민들이 도로를 개척한 고서흥(高瑞興)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지금의 기상청 북쪽(김만덕기념관 남쪽)인 이른바 공덕동산(건입동 1130-2번지)에 세운 것이다.

건입동 주민들은 예로부터 동문 밖으로 나들이를 하려면 북문과 동문을 거쳐 우회하여야만 하였으므로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바위언덕을 타고 넘어 다니기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험이 많았다. 그것도 밤에는 도저히 건너다닐 수가 없었다. 당시 경민장이었던 고서흥은 이런 사정을 보다 못해 한 해 농사지은 조 300석을 고스란히 내놓고 석수(石手)와 인부를 사서 도로 개척 사업에 착수했다.

동네사람들은 그의 공덕에 감사하여 관청에 진정서(等狀)²⁾를 제출하여 그 허락을 받고, 이 바위를 ‘공덕언덕’이라 부르고, 그가 뚫어놓은 길목에 비문을 새겨 길이 그의 공덕을 기렸다.

지금은 공덕동산 주변을 정리하여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고문서들이 남아있다. (『건입동지』 p. 250, 252)

▶ 화북포구

화북포구는 조선시대에 육지와 뱃길을 이어주던 아주 중요한 포구였다. 영조 11년(1734)에 김정목사는 선박의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길이 210척, 너비 21척, 높이 13척의 방죽을 화북 포



2) 等狀(진정서) : 여러 사람, 혹은 마을 명의로 관에 올리는 문서이다. 내용은 소송, 청원, 진정 등에 관한 것이며, 여러사람의 명의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이름을 연서(連書)하였다. (『건입동지』 p282)

구에 쌓았다. 이 공사를 주관하던 김정 목사는 동년 9월 화북진 객사 환풍정에서 사망하였다. 그래서 화북포구에는 김정목사의 공적비가 있으며 그 옆에 바로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해신사가 자리하고 있다.

2종항으로 개발되면서 허물고 다시 지어 외형은 달라졌지만 마을 민간 신앙터인 해신사가 있어서 아직도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포구 바로 옆에 왜적을 방어했던 화북진이 남아있고 용천수도 여러 군데 있다.

▶ 해신사

해신사는 화북포구의 동쪽 모퉁이에 있으며, 1820년 목사 한상묵이 해상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화북진 서쪽에 사당을 짓고 매년 정월 초엿새에 해신제를 지내도록 한 곳이다. 기와로 지은 사당 안에 ‘해신지위’라는 비석을 세워 놓았다.



▶ 화북진성

화북진은 조선시대에 군대를 주둔시키던 부대이다. 1678년에 최관 목사가 성을 쌓았는데 그 길이가 187m이며 높이는 3~4m 너비는 약 1m이다.



화북포는 제주목의 육지 출입 포구로 이곳에는 군인들이 사용할 무기와 곡식이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1926~1971년까지 화북초등학교로 사용되었으며, 지금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쓰이고 있는데 북쪽과 서쪽의 성벽의 길이는 187m이며 높이는 최고 4.3m, 최저 3m이다. 화북진은 애월진과 함께 해안의 성으로 제주성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다.

▶ 화북 환해장성과 화북연대

조선시대 제주의 방어체제

조선시대 제주는 5백여 년 동안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으로 구분되어 삼읍체제로 통치되었다. 방어체제는 ‘3성 9진 25봉수 38연대’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삼읍에는 성을 쌓아 3성만이 쌓아있었고,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애월진, 명월진, 차귀진, 모슬진, 서귀진, 수산진 등 9개의 진에는 방호소를 두었다.

연대는 해안에 설치하여 멀리서 다가오는 왜구의 침입을 연기나 횃불로 신호했고, 봉수대는 오름 정상에 설치했다. 이 신호는 근접한 다른 연대와 봉수대에 연락되면서 제주도 전체를 방어할 수 있었다.



환해장성이 남아 있는 곳은 성산을 신산리, 온평리, 신천리, 표선면 토산리(알토산), 하천리, 남원읍 태흥리, 대정읍 일파리, 구좌읍 화도리, 행원리, 동북리, 조천읍 북촌리, 함덕리, 신흥리, 조천리, 제주시 삼양3동, 화북1동, 애월읍 고내리, 애월리, 한림읍 귀덕리 등으로 화북 환해장성은 화북포구 서쪽에서 베릿내 하구까지 약 800여m가 남아 있으며, 화북1동 연대동산에서 삼양3동 버령마을까지 약 1km 정도 남아 있다.



제주 방어유적의 하나인 ‘환해장성’은 봉수, 연대와 같이 해안방어목적으로 쌓은 것으로 예로부터 외세의 침입으로 시달린 제주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쌓은 환해장성은 왜구뿐만이

아니라 19세기 이양선이나 표류선의 출몰이 잦아 그 대비책으로 축조했던 것인데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인들에게는 매우 절실했던 축조물인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에 관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기록한 기행문이자 인문지

리서인 『남사록(南槎錄, 1601년)』에는 돌로 쌓은 장성이 끊어지지 않고 연달아 이어진 모습을 보고 ‘만리장성’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제주 해안마을 곳곳에는 이러한 장성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화북 연대동산 동쪽 200여m 지점에서는 배수구를 확인할 수도 있어서 환해장성 중에서 상당히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02년 5월 일부를 복원했다.

▶ 조천연대



제주 방어체제의 하나인 연대는 전지역에 38개의 연대가 있었다. 그 중 조천연대는 조천진에 소속된 연대였으며, 현재는 조천읍 조천리 마을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1976년 9월 9일에 제주도 기념물 제23-5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서쪽으로 별도연대, 동쪽으로 왜포연대와 교신하였다.

▶ 조천 연북정

선조 23년 1590년 절제사 이육이 성을 동북쪽으로 돌려 쌓은 다음에 정자를 그 위에 옮겨 세워서 ‘쌍벽정(雙碧亭)’이라 했다. 그 후, 1599년(선조 32)에는 성윤문(成允文) 목사가 그 건물을 중수하고 임금을 사모한다는 뜻으로



연북정(戀北亭)이라 개칭하였다. 이것은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제주의 관문인 이곳에서 한양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북녘의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을 보낸다는 여불인 이름이라 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경찰관주재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 건물은 1973년에 보수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광문당, 2009. p.210.)

▶ 모충사



사라봉 동남 측에 15,000여 평 규모로 조성된 모충사는 선현들의 애국애족의 거룩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곳으로 1976~1977년에 조성되었다. 이곳에는 <의병항쟁기념탑>, <순국지사 조봉호 기념탑>, <의녀 반수 김만덕 묘탑>

이 세워져 있고, 김만덕 묘비(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 64호)가 세워져 있다.

김만덕이 1812년 74세의 일기로 사망하자 ㄱ으니 ㄴ르(제주시 건입동 710번지)에 묻혔는데 제주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 원묘를 옮기게 되어 유해를 수습하여 모충사 경내의 묘탑에 안치하고, 원묘에 있던 묘비와 상석, 동자석, 망주석 등의 석물을 이곳으로 옮겨 놓았다.

참고문헌

건입동마을회, 『건입동지』, 2008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광문당, 2009.

제주문화원, 『제주시 옛지명』, 1996.

김만덕전시관

| 2015 제주문화 답사 |

조선사회속의 김만덕

